



# 로덱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요일 4:18)]

- 2022. 09. 04 창조절 첫째 주일
- 오전 11시
- 온라인 ZOOM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찬양  
(다 같이)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 짐 벗고 보 니  
주 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보 던 하늘 나 라  
높 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 나 궁궐 이 나



슬픔 많은 이 세 상 도 천 국 으 로 화 하 도 다  
내 맘 속에 이뤄 지 니 날로 날로 가 갑 도 다  
내 주 예수 모 신 곳 이 그 어 디 나 하 늘 나 라



할렐루야 찬양 하 세 내 모든 죄 사 함 받 고



주 예수와 동행 하 니 그 어 디 나 하 늘 나 라

## 생태정의를 위한 기도문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가늠할 길 없는 세월을 이 지구와 함께하신 주님,  
지혜로 창조하신 이 땅의 순환은 우리에게 신비와 경이  
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다 파악하기도 어려운  
짧은 생만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짧은 생 안에서조차 변해가는 지구  
의 기후 만큼은 매일 우리의 피부로 느낄만큼 확연하고  
분명합니다. 이 지구 곳곳에서 규칙을 잃어버리고 일어  
나는 무더위와 폭우, 그리고 그 재난 안에서 고통받는  
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스스로의 편리  
와 편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과 함께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을 헤아리고자손을 모으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탐욕을 회개하고, 위기 앞  
에서 서로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며 이 땅의 순환을 온전하  
게 되돌려 놓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이 땅을 함께 공유  
하는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온 계절을 경  
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던  
주님, 위기 앞에선 이들을 불쌍히 여겨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8-21절]

18.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19.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20.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21.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설교  
(유연희 목사님)

# [ 하나님 나라의 비밀 ]



헌금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1.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2.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네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네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 - 다

Copyright (C) 1996 정성실. Adm. By KOMCA. Used by Permission.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유연희 목사 -

1.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습니다.

파송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